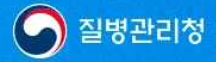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자료

□ SFTS 예방수칙 안내 카드뉴스

2026.4.27.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농작업, 야외활동
(제초, 등산, 캠핑 등) 후
2주 이내 발열, 설사, 근육통,
오한 등 증상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 모자, 양말 착용으로
노출을 줄이고 기피제 사용하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하기
※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작업 및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고,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대국민용)

진드기매개감염병!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예방 3 풀숲 회하고



예방 4 털고, 씻고, 빨래하고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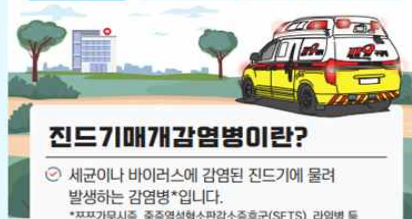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관리 2 물린흔적 찾아보고!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진드기매개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 SFTS 2차감염 예방을 위한 포스터(의료기관 종사자용)

의료기관종사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 감염 예방 수칙

SFTS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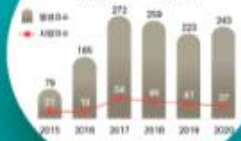


진드기 물림
주로 4~11월 사이에 발생
드물게 사람 간 전파
SFTS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직·간접 노출

고열(38~40°C)
소화기증상
(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백혈구 감소



5명 중 1명 사망
(치명률 약 20%)



SFTS (의심) 환자 진료 시

발열, 설사,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는 환자 문진 시 야외활동력 물어보고, SFTS를 의심하세요!
SFTS (의심)환자 심폐소생술이나 사망환자에 의해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하기

SFTS (의심) 환자 감염 예방법

표준주의·접촉주의 준수하기

· 손위생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있을 때

40~60초
물과 비누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없을 때

20~30초
손소독제



·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마스크



장갑



1회용 비닐 가운
또는 비닐 앞치마



고글 또는 면보호구

· 사망환자 사후 처리 시 접촉주의 준수하기

중증환자 관리 시 비밀주의

(필요시 N95/KF94 동급이상 마스크 착용)

개인 보호구 착용 시 주의 사항

착용시



손가락으로 마스크 끈부분이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장갑은 손목 위를 덮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착용

탈의시



겉 부분을 최대한 안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
개인 보호구 탈의 단계마다 **손 위생**

장갑 걸면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중첩
장갑 안쪽이 밖으로 오도록 뒤집어 탈의

가운 걸면은 신체에 닿지 않도록 주머니에
안쪽으로 모아주면서 탈의

안면 보호구는
앞면을 안지하지 않기
(누 골격 보호)

마스크 걸면은 만지지 않고
전면 장애 드로퍼기를
전용통기통 버리기

SFTS(의심)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 시 대처방안

노출된 부위는 철저히
물과 비누로 씻기



결막에 노출된 경우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충분히(15분 이상) 세척



노출 후 15일 동안
하루 2회씩 발열 감시
및 추적관찰 시행



□ SFTS 관련 질의응답(Q&A)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인가요?

-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Q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매개 진드기는 주로 어디에 있나요?

-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부착 대상이 수풀 속을 지나가면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에 붙어 흡혈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을 날아가 달라붙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접촉하게 됩니다.

Q3. 진드기에 물린다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고 모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Q4. 진드기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합니다.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드기를 제거 받거나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제거하고, 소독하도록 합니다. 또한 진드기에 물린 후 약 14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요?

- 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와 같은 질환과는 그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가족 등에서 SFTS 2차감염 사례가 있었으므로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가 현재 없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7.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풀숲이나 덩굴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